

# 20世紀文學의 基本思潮

— 統一性的 喪失을 中心으로 한 考察 —

金 顯 承\*

죽음 앞에 蒼白하게 몸서리치는 肉體  
코가 비틀어지고 血管이 멎기고  
목덜미가 붓고 상등이가 부풀어 오르고  
힘줄도 神經도 축 늘어진다.  
부드럽고 미끈하게 향기를 풍기던, 진실로 아름답던  
그대 女人의 肉體여, 그대마저도  
이같은 業苦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가.  
아무도 하기야 살아서 天國으로 갈수는 없기에<sup>1</sup>

이 詩篇의 作者 François Villon(1431-1465?)은 中世 末葉에 프랑스에 태어났던 詩人이다. 中世의 詩人으로서 稀貴하리만큼 그 時代의 思想과 信仰에서 벗어난 매우 異質的인 精神과 感覺의 所有者였다. 그의 生活 自體도 그러하였다. 그는 어려서 일찍 父母를 여의고, 한 聖職者의 保護 아래 僧侶가 되기 위한 教育을 받았으나, 그후 還俗하여 放浪生活에 들어 갔다. 그의 一生을 통하여 竊盜・殺人등의 罪目으로 投獄과 追放을 당하기 屢次에, 드디어 1463年에는 빠리로부터 永久히 追放을 당하기에 이르러, 어느 해 어디에서 終身하였는지 조차 분명하지 않은 浮浪의 詩人이었다.

冒頭에 引用한 詩를 통하여 그의 不安과 恐怖와 絶望에 찬 人生觀을 實感할 수 있다. 現代 詩의 鼻祖 Baudelaire의 惡魔的 憂鬱을 聯想케 하는, 아니 그보다는 그러한 Baudelaire의 先驅者로서의 面目을 躍如케 하는 表現이다.

그리스도敎의 信仰으로써 완전히 統一된 中世에 있어, 마리아의 품에 안기어 平和로이 臨終하기를 꿈꾸던 當時의 通念과는 너무도 距離가 먼 참혹하고 救援받을 수 없는 死後觀이며 人生觀이다. 그러나 이 龍大한 詩篇을 자세히 읽어 보면 後半部에 이르러 이와 같이 中世的 思想에 叛逆한 異質的인 詩人도 결국은 中世的 그리스도敎의 人生觀으로 돌아와, 이 長詩의

\* 國語・國文學 教授

1. *Le testament*(《遺言書》)의 一節.

歸結을 맺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된다.

저는 舊式의 가난한 女人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런 글도 읽을 줄 모릅니다. 저의 聖堂 안에서 豎琴과 琵琶가 그려진 樂園의 그림과 罪人들이 불에 타는 地獄의 그림도 바라 봅니다. 저는 한편 두렵고 한편 기쁘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天主시여,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아무런 罪人이라도 당신에게는 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움전대 꾸밈없는 참다운 믿음을 저에게 부디 내려 주십시오. 이 믿음을 저의 몸에 간직하고 저는 살기도하고 또 죽기도 하렵니다.<sup>2</sup>

그는 이와 같이 死後의 平和를 위하여, 그의 母親의 素朴한 言語를 빌려 聖母 마리아에게 祈願하는 것이다. 이러한 詩의 마지막 表現을 통하여, 그의 思想은 결국 咀呪스럽고 矛盾된 現實을 信仰으로써 解決하고 統一하려는 것을 歷歷히 알수 가 있다.

한 세상 나그넛길 반 고비에  
올바른 길 잃고 헤메이던 나  
킴킴한 숲 속에 서 있었노라<sup>3</sup>

Dante (1265-1321) 도, 그의 『神曲』(*Divina Commedia*)의 序曲을 보면, 人生의 길에 대하여 이와 같이 彷徨하고 있었다. 그러나 地獄과 鍊獄의 오랜 過程 끝에 베아트리체가 聖母마리아와 함께 安住하는 天國篇에 이르러서는

그 깊이 속에 나는 보았노라  
조각 조각 우주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사랑으로 한 권에 엮어져 있는 것을<sup>4</sup>

이와 같이 天主를 中心으로 한 統一의 原動力을 노래하게 되었고, 또는

스스로 당신 안에 있어 스스로 당신을 알고

2. 同 上.

3. 《地獄篇》第1曲 第1句.

4. 《天國篇》第33曲 第85句.

당신에게 앞받고 당신을 아시며

사랑하고 웃으시는 오 영원한 빛이시여<sup>5</sup>

하고 統一者의 絶對的 本性을 깨달아 노래하고 있다.

人間의 外部的 現實을 規定하는 內面的 現實이란, 放任된 狀態에선 매우 複雜한 것이어서, 그 多樣性은 실로 人間으로 하여금 精神分裂症을 일으키게 할 程度이다. 그 한 實例를 James Joyce(1882-1941)의 *Ulysses*의 한 句節에서 보기로 한다.

아, 덥다. 그의 오른 손은 또 한번 친친히 얼굴을 만졌다. 最上品의 세이론製의 精選 混合茶. 極東. 좋은 곳일 게 틀림 없다. 세계의 庭園이다. 물 위에 떠 있는 크나큰 倦怠로운 입사귀. 仙人掌. 꽃피는 들과 平原. 뱀모양한 휘감긴 소위 熱帶產 藤나무. 참말일까. 太陽 아래 어청거리며 달콤한 安逸 속에 빠지는 세이론의 住民들. 하루 종일 손가락 하나 까딱 않는, 一年中 여섯달은 잠을 자고, 더워서 싸움도 할 수 없다. 氣候의 탓이다. 조름오는 倦怠・懶惰의 꽃. 가장 榮養分이 많은 것은 空氣다. 窒素. 植物園의 溫室. 조름나무. 睡蓮. 지쳐빠진 花瓣. 공중의 睡眠病. 장미의 花瓣 위를 걷는다. 소의 胃腑와 다릿살을 끊어 먹으려고 하는 참을 생각해 본다. 어디선가 저 寫眞에서 본 듯한 녀석은 어디에 있었던가 아아, 그렇다. 死海다. 正面으로 물 위에 떠서 洋傘을 펴고 책을 읽고 있었지. 베개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 만큼 소금기가 많으니까.

(So warm. His right hand once more more slowly went over again: choice blend, made of the finest ceylon brands. The far east. Lovely spot it must be: the garden of the world, big lazy leaves to float about on, cactuses, flowery meads, snaky lianas they call them. Wonder is it like that. Those Cinghalese lobbing around in the sun, in dolce far niente. Not doing a hand's turn all day. Sleep six months out of twelve. Too hot to quarrel. Influence of the climate. Lethargy. Flowers of idleness. The air feeds most. Azotes. Hothouse in Botanic gardens. Sensitive plants. Waterlilies. Petals too tired to. Sleeping sickness in the air. Walk on roseleaves. Imagine trying to eate tripe and cowheel. Where was the chap I saw in that picture somewhere? Ah, in the dead sea, floating on his back, reading a book with a parasol open. Couldn't sink if you tried: so thick with salt.<sup>6</sup>)

午前 10時쯤 부름이란 사내가 土耳其 목욕탕엘 가는 途中 한 茶舖 앞을 지나며 一瞬間 그의 意識에 떠오르는 것을 自動式으로 記述하고 있다. 實際에 있어선 이보다도 더 많은 意識

5. 《天國篇》第33曲 第124句.

6. *Ulysses*, p. 71, 72.

이 갈피없이 떠올랐겠지만 作者 Joyce는 이 程度로 整理하여 記述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人間의 全意識世界란 얼마나 복잡하고 多端한 것인가를 可히 想像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意識의 이러한 錯雜과 混沌을 그대로 放置한다면, 人間의 生이란 秩序를 잃고 無意味하게 된다. 이와 같이 雜多한 意識의 侵攻을 무슨 方法으로든지 防止하지 못할 때, 人間의 精神狀態는 錯亂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人間 個個人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個人들의 集團인 社會와 그 社會가 만들어 내는 文化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個人이나 社會의 文化가 思想的인 統一의 支柱를 잃어버리고, 雜多한 騷亂 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彷徨하는 것은, 마치 道路가 트이지 않은 곳, 亂立한 建物과 輻輳하는 車輛의 더미 속에서 갈바를 몰라하는 人間의 外部的 現實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矛盾으로 가득찬 人間의 混亂한 內部的 現實을 헤치고 나가기 위하여는 그것이 宗教的인 것이건, 道德的인 것이건, 政治的인 것이건, 또는 하다못해 日常生活의 趣味的인 것이건, 어떠한 人間內部的 錯雜과 混亂을 整理시켜주고 統一할 수 있는 그 어떤 目的과 信念과 原理가 必要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아무리 混亂한 都心地帶에서도 그것을 헤치고 가는 捷徑인 길이란 것이 있듯, 人間의 內部的 세계에도 이 混亂들을 헤치고 가게 하는 統一의 原理인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東洋的인 慣習으로는 이러한 生의 原理를 일찍부터 <道>라는 이름으로 불려오지 않았던가.

中世에 있어, 意識의 無限한 深淵으로부터 人間을 건져내어 秩序와 統一을 賦與할 수 있는 生의 原理는 그리스도教的 信仰이었다. 그리스도教的 信仰은 人間의 心理와 生活과 文化에 있어 거멀못의 役割을 하게 되어, 雜多와 分裂을 防止하고 하나로 集中케 하였다. 希臘과 로마의 叙事詩를 보면, 英雄을 中心으로 하여 온 國民이 하나로 統一되었듯, 中世의 生活과 文化는 信仰으로써 뭉쳤고, 이러한 集中과 統一은 오늘 20世紀의 立場에서 바라보면, 어떠한 古代社會와 그 社會의 所産인 文學의 자랑할만한 特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렷던 時代에 있어 그 時代精神을 反映하는 文學이 그 內容에 있어 統一性を 堅持하고 그 形式美에 있어 秩序와 調和를 존중하게 되었음은 當然한 일이다. 위에서 指摘된 바와 같이, 中世의 狀況 아래에서는 가장 叛逆的이고 異端的인 Villon의 文學조차도 결국은 中世의 指導原理인 信仰으로 歸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事實에서, 우리는 中世文學과 信仰의 밀접한 관계를 더 한층 明確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中世의 神中心의 思想은 近代에 이르러 人間中心의 思想으로 바뀌었으며, 따라서 信仰의 權威도 理性의 權威로 代替되고 말았다. “理性은 萬物의 尺度다”라는 저 자못 天真爛滿한 標語가 近代初期의 人間들이 지녔던 素朴한 信條를 端的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眞이 아니면 美가 아니다. 眞만이 곧 美다”라고 強調한 Boileau(1636-1711)의 詩論은 古典主義 文學이 얼마나 理性의 役割을 重要히 여겼는가를 端的으로 說明하여 주는 것이다. Kenyon

Cox(1856-1919)는 그의 著『古典的 見解』(*The Classic Point of View*)에서 理性과 秩序를 존중하는 古典主義 文學의 特性을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古典的 精神은 完全에 대한 沒利害感의 探究이다. 그것은 明晰함과 理性的인 것과 自己制御를 愛護하는 것이다. 특히 그것은 恒久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新奇하고 效果가 많은 藝術은 아니고, 優雅하고 高貴한 藝術을 要求한다. 그것은 단순히 個性과 情緒를 表現함을 求하는 것만이 아니고 訓練과 情緒와 法則에 의하여 制限된 個性을 要求한다. 그것은 偶然的인 것보다는 本質的인 것. 瞬間的인 것보다는 오히려 永久的인 것을 渴望한다. 그것은 個性보다도 非個性을 사랑하고 地震이나 暴風이나 暴動보다는 時間이나 季節의 秩序있는 계속에 있어서 보다 많은 힘을 느낀다.<sup>7</sup>

19世紀 後半의 自然主義 및 寫實主義 文學에 있어서도 文學理論의 根據를 理性에다 두고 있음은 古典主義 文學과 範疇를 같이하고 있다. 差異가 있다면 古典主義 文學에 있어서 強調하는 理性이란 <眞>이라는 名目아래 보다 哲學的인 性格을 띠운데 比하여, 自然主義 文學에 있어서의 理性은 <眞實>이란 名目아래 보다 科學的인 色彩가 濃厚하였을 뿐, 그것들이 生活과 文學의 統一原理로서 함께 理性을 絶對視함에는 별다른 區別이 있을 수 없다.

事件에 손질을 하여 最後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의 人物 또는 數個의 人物의 生活의 어느 期間을 捕捉하여 그들 人物로 하여금 自然의 行路를 걸어가게 한다.<sup>8</sup>

在來의 作家가 주로 人生의 危機, 心神의 激動한 狀態를 描出한데 反하여 오늘의 作家는 平常狀態에 있는 어떤 情·意·智의 歷史를 만든다.<sup>9</sup>

目的하는 것은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感情의 興奮을 주기 위하여서도 아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反省케 하고 써 事件의 밑바닥에 숨어 있는 깊은 意味를 깨닫지 아니치 못하게 함이다. 如何한 事件에도 그 가운데는 반드시 숨은 무엇이 있다. 오직 우리의 눈이 先人의 思考한 方式을 언제나 回顧함에 길들어 있기 때문에 그 감추인 무엇을 發見할 수 없는 것이다. 如何히 微細한 事件이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거기에 相當한 量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發見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10</sup>

7. 本間久雄, 『歐州文藝思潮』 68頁 參照.

8. 相馬昌治, 『歐州近代文藝思潮』 100頁 1~4行.

9. 同上, 100頁 4~5行.

10. 同上, 100頁 9~15行.

以上과 같이 自然主義 내지 寫實主義 小説의 特徵을 Maupassant (1850-1893)이 指摘하였을 때, 또는 그 Maupassant을 가르친 Flaubert (1821-1880)의 말 가운데 寫實主義文章의 特質을

세상에는 전혀 같은 것은 두개가 없다. 한가지 事物을 表現함에는 한가지 말밖에 없다. 무엇을 表現함에 있어서도 이밖에 더 表現할 길이 있을 수 없는 그 말을 發見하기까지 참고 견디어라. 11

라고 強調하였을 때 이러한 文學이 作者에게 峻烈한 正確性을 要求하는 그 根據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오로지 人間理性에 대한 絶對的 信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註文이요 要求인 것이다.

이제 눈을 浪漫主義 文學으로 돌려 考察한다고 하면, 感情의 優位를 高調하는 浪漫主義의 本質이 理性의 세계와는 氷炭의 關係에 있어 보인다. 또는 浪漫派의 巨匠인 Keats (1795-1821)가 저 有名한 《希臘古甕賦》에서 “美는 眞이요, 眞은 美라”고 노래한 含蓄많은 句節은, 적어도 皮相的으로는 眞을 第一義로 삼는 Boileau의 立場과는 正反對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主張들은 相對的 立場에서 各自가 서로 眞과 美 즉 理性과 感性의 優位를 따지는 것이지, 결코 그 絶對性을 固執하는 것은 아니라고 解釋해야 할 것이다. 그 絶對性을 固執할 수 없다는 事實은 무엇보다도 浪漫主義 文學의 實際 作品들이 證明하여 주고 있다.

마치 불 안겨진 화로에서 재와 불꽃이 날리듯  
나의 言語를 人類 사이에 뿌려다오!  
나의 입술을 통하여 깨지 않는 누리에  
豫言의 나팔이 되어 다오! 오오 바람이여  
겨울이 오면 봄인들 어이 까마득하리? 12

Shelley (1792-1822)의 《西風賦》(Ode to the West Wind)를 더욱 값있게 만들어 人口에 膾炙되게 하는 마지막 두 聯이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豫言의 나팔이 되어 다오”의 誇張된 表現에서 讀者는 분명히 浪漫의 美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겨울이 오면 봄인들 어이 까마득하리”의 表現에서는 希望과 함께 眞實을 吐露하는 理性의 作用을 느낄 수는 없을 것인가? 아무도 이러한 表現을 가리켜 수다스런 熱狂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浪漫은 浪漫이로 되 必然的인 眞實을 告하는 節度있는 浪漫이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浪漫의 밑바

11. 同上 105頁.

12. 《西風賦》의 一節(梁柱東譯『英語百選』218面).

닥에는 고요한 理性이 作用하고 있음을 看過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寧邊에 藥山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이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13

우리가 愛誦하는 素月の 詩 《진달래꽃》을 文學史家들은 어느 潮流에다 分類하여 넣을지 잘 모른다. 그러나 이 作品이, 浪漫主義 文學이 우리 나라에서 한창 盛行했던 1920年代에 우리 文壇에 產出된 詩인 것만은 틀림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作品의 內面을 엄밀히 分析하여 보면 그 詩想을 統一하고 있는 精神的 要素는 理性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理由는 무엇 이든, 愛人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當事者의 心境은 錯雜할 것이다. 이 錯雜한 心境에 따라 버림받은 愛人은 여러가지 行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버리고 가는 相對者를 咀呪하고 罵倒할 수도 있다.甚하면 橫暴를 부릴 수도 있다. 혹은 自暴自棄의 心情으로 滿醉하거나甚하면 自殺行爲를 取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편이건 그것들은 理性이 命하는 言動은 아니다. 그러한 行動으로써 愛情과 人生에 勝利를 거둘 수 없음을 作者의 理性은 너무도 밝히 알고 있다. 버리고 가는 님에게 어떠한 行動으로 對하는 것이 가장 참되고 아름다움인가를 作者의 理性은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諦念이다. 떠나는 임의 길에 진달래꽃을 갈아드린다는 이 誇張된 浪漫性에만 眩惑되어, 그 속에 보다 깊이 스며있는 諦念이라는 理智의 고요한 힘을 看過하면 이 作品의 眞正한 價値를 놓지게 되고 말 것이다. 적어도 素月에게 있어 諦念은 결코 無知의 所産은 아니었다. 진달래꽃을 갈아 주는 餘裕를 가진 諦念임을 보아 그

13. 《진달래꽃》全篇(正音社刊『素月詩集』20面).

것을 알 수가 있다. 希臘의 悲劇을 읽을 때 希臘의 貴族이나 英雄들은 無知하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理智的이어서 運命에 부질없이 抗拒하지 않고 諦念으로써 臨하였다는 事實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았던가? 이와같은 理智의 힘에 의하여 이 詩는 그 形式的 律格美의 完全한 調和에 못지 않게 그 精神的 統一을 完遂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近代文學의 모든 分野를 살펴보면 심지어 浪漫主義 文學에 있어서까지도 그 精神의 背後에는 近代生活의 根本理念인 合理主義가 底流를 이루고 있고, 그 文學作品의 主題들은 한결같이 理性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統一的 現象을 發見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意味에서는 19世紀 最後의 作家이며 同時에 20世紀 最初의 作家라고 할 수 있는 Dostoevsky(1821-1881)에서까지도 우리는 이러한 合理主義의 本質을 發見할 수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그의 重要한 作品인 『罪와 罰』에 있어서 多分히 나타난다. 宗教的 良心을 가진 娼婦 소나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犯罪에 대한 自白을 呼訴한 것은 라스콜리니코프의 良心을 向하여서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녀의 呼訴를 받아들인 그의 良心은 그러나 宗教的 良心이기보다는 차라리 理性的 良心이었다고 判斷함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宗教的인 良心을 갖기에는 라스콜리니코프의 人生觀은 너무도 理智的이었다. 그것은 시베리아를 向한 流刑의 길에 소나와 同行하리만큼 것처럼 宗教的인 소나를 사랑하면서도 결코 宗教的 信仰에 歸依하는 것은 아니었던 그의 行動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다. 『罪와 罰』에 대한 이러한 判斷이 한갓 獨斷이 아니라면 人間心理의 內面探求에 先鞭을 대었다는 點에서 20世紀 最初의 作家라고 부를 수 있는 Dostoevsky는 또한 人間の 理性을 最後로 信賴하려 하였던 點에서는 19世紀 最後의 作家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破壞의 大戰과 함께 門을 연 20世紀라는 새로운 時代의 狀況은 자못 달라지고 말았다. 일찌기 神을 拒否한 人間の 理性은 어느덧 否定을 당하는 位置에 自身の 運命이 스스로 놓이게 되었다. 滅殺은 滅殺을 가져오고 屍體가 屍體 위에 덧 놓이게 된 것이다. 大戰에 의하여 허물어진 것은 近代都市의 極致를 갖춘 物質的 施設들만이 아니었다. 그러한 制度와 文物을 到處에서 떠받들고 있던 近代의 精神的 理想들이 허물어져 버렸다는 보다 根元的이고 無形한 事實들이 더욱 重要하고 深刻한 歷史的 意味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暗澹한 事實이 있다. 그것은 이 近代精神의 本質의 內容이던 合理主義를 崩壞시킨 他者와 他力을 아무곳에서도 發見해 낼수 없다는 絶望的인 事實이다.

中世의 教條主義를 무너뜨린 他力은 嚴然히 合理主義의 思想이었다. 그러므로 이 合理主義 思想은 教權과 信仰이 무너져 나간 世紀의 空白과 混亂을 능히 카마하고 새로운 指導理念으로서 새로운 時代의 새 秩序를 收拾하고 建設하여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現代에 들어와 近代以來의 合理主義가 崩壞된 것은 對立된 다른 文化의 反動的 攻擊에 의하여서라기보다도 차



라리 合理主義 그 自體의 矛盾에 의하여 스스로 崩壞作用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만큼 무너져 나간 空白을 그만큼 채우고 그를 뒷감당할만한 아무런 새로운 指導原理과 그에 대한 徵候도 보이지 않는다는 暗澹한 오늘의 事實에서, 現代의 보다 深刻한 表情을 發見할 수가 있으며 같은 轉換期의 混亂이면서도 자못 希望 가운데 일던 18世紀의 混亂과는 매우 다른 20世紀의 特殊한 混亂의 樣相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겨울은 허물어지고 있으나 아직 봄의 기운은 쌓이지 않는 이 特殊한 歷史季節의 陣痛을 그러면 現代의 文學들은 어떻게 反映하고 있는가?

한편 空中으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腐敗菌의 한 떼가 이미 그 執拗한 侵入을 개시하였다. 그것은 細胞 속에 蟄居하고 生長하고 무수히 번식한다. 그 生長과 번식 속에서 肉體의 모든 化學的 構造는 解體되고 그 복잡한 物質은 分解된다. 그리하여 腐敗菌의 作用이 끝날 무렵에는 數千의 炭素, 두어 홑의 물, 얼마의 石灰, 少量의 硫黃과 燐, 한 오줌의 鐵과 硅酸, 한 주먹의 소금——그것은 모두 흩어져 周圍의 세계와 다시 化合한다——이것이 에베라드웨브레의 支配欲, 에리나에 대한 사랑, 政治에 관한 思索 등등이 소멸한 뒤에 남은 一切인 것이다.<sup>14</sup>

이것은 Aldous Huxley (1894-1963)의 小說 『對位法』의 一節이다. 政治의 權力者였던 웨브레라는 人間이 被殺되어 그 屍體가 썩어져 가는 場面을 描寫한 部分으로서, 웨브레의 生前의 面貌가 이 처참한 屍體와 對稱의 手法으로 列擧되어 있다. 이러한 描寫에서 느낄수 있는 것은 作者의 極烈한 解體意識이다. 웨브레는 特定한 한 個人이 아니다. 그것은 統一의 原理를 喪失함으로써 分裂과 解體에 놓인 現代人의 類型인 것이다. 作者는 冷酷하리만큼 徹底한 解體를 통하여 理性이 물러나간 現代의 虛無를 파헤치고 있다. 解體의 窮極은 無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T.S. Eliot (1888-1963)도 그의 詩 《荒蕪地》 *The Waste Land*에서 現代의 虛無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虛妄한 都市  
겨울의 새벽 褐色 안개 속에서  
런던橋를 흘러가는 수많은 사람의 떼,  
죽음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망친 줄은 몰랐었다.  
짧은 한숨을 드문 드문 내어쉬며  
제각기 발뿌리를 굽어 보며 걷고 있었다.<sup>15</sup>

14. Huxley, *Point Counter Point*의 一節.

15. 西脇順三郎譯, 《荒地》 8頁.

文化가 中世나 近代처럼 하나의 確固한 理念으로써 統一되어 있을 때에는 懷疑나 解體나 虛無의 思想은 插入될 餘地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精神의 支柱가 허물어진 時代에 있어서 그 反映으로서 文學에 이와같은 動搖와 不安의 思想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은 當然한 歸趨이다.

七十五番街의 느슨이 열린 地下室 入口의 門을 비켜서 그는 밝은 쪽 鋪道 위로 건너 갔다. 해는 조우주教會의 鐘塔 근처에 떠 있었다. 날씨가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이런 까야만 옷을 입으면 더 그렇게 느껴지거던 感情은 熱을 傳導시키고 反射시킨다. (反射가 아니고 屈折이던가?) 그렇지만 저 밝은 옷을 입을 순 없지. 그것은 피크닉에나 소용되는 것이야. 아늑한 溫氣 속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그의 눈꺼풀은 이따금 조용히 감겨졌다. 볼란드의 빵運搬車는 정반에다 每日 빵을 配達해 주는 터이지만 그 女子는 맨 윗 部分이 파삭 파삭하게 익은 빵덩이를 좋아하지. 그것은 당신이 젊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東方의 어느곳 이른 아침. 새벽녘에 出發해서 太陽의 앞을 돌아 旅行하며, 살금 살금 그에게 가까이 간다. 날이란 결코 기술적으로 더 길어질 수 없다는 것을 늘 銘心하라. 바다 기슭을 낚선 땅을 따라 걸어라. 都市의 城門걸으러 오라. 거기서 把守를 서라. 老兵도 또한 그렇다. 긴 槍을 짊고 서 있는 늙은 兵士의 턱수염 보리까시랭이가 흩어져 있는 거리를 이리 저리 돌아다녀 보라. 터번을 쓴 얼굴들이 옆을 지나간다. 絨氈商店의 캄캄한 洞窟. 巨人. 무시무시한 터코우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아 鐵糸를 구부려 말린 파이프를 담배를 피우고 있다.

(He crossed to the bright side, avoiding the loose cellar-flap of number seventy five. The Sun was nearing the Steeple of George's church. Be a warm day I fancy. Specially in these black clothes feel it more. Black conducts, reflects (refracts is it?) the heat. But couldn't go in that light suit. Make a picnic of it. His eyelids sank quietly often as he walked in happy warmth. Boland's breadvan delivering with trays our daily but she prefers yesterday's loaves turnovers crisp crowns hot. Makes you feel young. Somewhere in the east: early morning: Set off at dawn, travel round in front of the sun, steal a day's march on him. Keep it up for ever never grow a day older technically. Walk along a strand, Strange land, come to a city gate, sentry there, old ranker too, old Tweedy's big moustaches leaning on a long klud of a spear. Wander through awned streets. Turbaned faces going by. Dark caves of carpet shops, big man, Turko the terrible, seated crosslegged smoking a coiled pipe.16)

異國의 動物과 寬大한 工業家は  
같은 동그라미 속에 있다  
키스의 街路樹 거리  
青春들의 疾患

16. *Ulysses*, p.57.

鳥籠과 씨커스의 寢臺의 壁紙  
 인사하는 아트리에  
 춤을 서둘러서 춤을  
 微妙한 化學  
 주사위를 던져라  
 바다로 가는 사나이  
 한 사나이가 지나간다 너석을 보고 싶다.  
 그는 蒼白하게 질려 달린다 나의 凍傷의  
 손꾸락보다 푸른 레일의 汚點  
 鐵道 工場  
 쇠는 탄다  
 森林  
 감옥의 담배 꿈속의 어머니  
 술집 로타리 앓는 파리한 모습  
 木曜日 木曜日  
 그대의 손을잡아라 나무 가는 가지  
 太陽의 고요로움  
 化合物 소금  
 貨物車에 結果를 실어다 주렴  
 우리의 친구인 그림자  
 將軍은 두 손으로 命令한다  
 아름다운 懷中時計<sup>17</sup>

前者는 James Joyce의 小說 『율리시즈』의 一節이며, 後者는 André Breton(1896- )과 Philippe Soupault (1897- )의 合作으로 된 《磁場》의 一節이다. 하나는 小說의 形式으로 다른 하나는 詩의 形式으로 意識의 흐름을 記錄하고 있다. 意識의 흐름이란 아무런 理智의 作用에 의하여서도 整理되거나 統一되지 않은 意識의 있는 그대로의 錯雜한 狀態를 두고 일 건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雜多한 意識을 必要한만큼 合理的으로 整理하고 統一하여 詩나 小說을 表現해 오던 從來의 常識과 慣習에 의하여 생각하면, 이러한 作品들은 매우 쓸모없는 하찮은 意識들을 아무런 目的도 없이 羅列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修正을 加하지 않는 聯想作用에 의하여 일어나는 雜多한 內部意識의 흐름을 이와같이 自動적으로 記述하는 것은, 現代의 作者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意義있는 일이며 가장 眞實되게 人間의 現實을 把握한 行爲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統一의 支柱이던 理性이 沒落하

17. André Breton; Philippe Soupault, *Les Champs Magnétique*.

여 나가 버린 現代에 있어서 남을 수 있는 것이란 雜多한 意識의 狀態 그것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雜多한 意識의 狀態 그 自體야말로 現代人의 本質을 이루고 있는, 숨길 수 없는 숨겨서는 아니 될 實相이라고 現代의 作者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作者들에 理論的 뒷받침이라도 하듯, T.E. Hulme (1883-1917)은 소리를 모아 그의 著『灰燼, 新世界觀의 素描』*Ciuders. A Sketch of a new Weltanschauung*)에서 宇宙에 다 統一과 秩序를 賦與하던 從來의 世界觀을 다음과 같이 顛覆하고 있다.

宇宙의 循環的인 機構를 發見하기는 困難하다. 그런 것은 存在하지 않기 때문이다. 宇宙는 一部가 組織化되어 있는데 不過하다. 나머지는 灰燼이다.<sup>18</sup>

哲學的 綜合이나 倫理體系는 安樂椅子에 앉아 있을 때에만 可能하다. 더러운 갓난 아이들이나 群衆들이 법석이는 巴士를 타게 되면 그런 것은 無意味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sup>19</sup>

고 宇宙의 實相은 統一이 아니라 混亂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내가 네生日에 보내려고하는 驚異를 너는 기다리고있을 必要가 없다. 그날은 오늘로서 곧 나의 生日인 것이다——나는 지금곧 너를 놀랍게 해주마 왜냐 하면 나는 나의 일을 숨바꼭질을 하여 달라고 네게 부탁하여 너를 놀라게 하기전에 4년에 十五回나 기다렸기 때문이다——나는 바란다 나를 생각하여 주는것 같이 웃고있는 永遠한 나의 젊은 女人이여 잠들기 전에 나는 太陽을 위하여 검은 구름을 헤여주었다. 野菜를 가득실은 馬車의 검은 구름을 헤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밤이 되면 너를 아스트라칸의 海邊으로 데리고가자 사람들은 戰爭用의 石油로 된 네 두 눈에 그 海邊을 두개의 地平線위에 건설중이다. 나는 海草와 에메랄드로 깔린, 다이야의 道路를 지나 너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자 너에게 내가 걸쳐주는 흰천은 망 또는 猛禽인 너의 발이 짓밟는 다이야 몬드는 내가 나비의 形狀으로 자르게한 것이다.<sup>20</sup>

散文體로 된 이 詩는 André Breton과 Paul Eluard (1895-1952)의 共同作인 《處女孕胎》의 一節이다. 作者들은 이 作品에서 滅頂한 理性을 가진 精神異常者가 아니면서도 精神病을 假裝하고 理性을 어디까지 錯亂시킬 수 있는가를 試驗하여 보고 있다. 處女가 孕胎한다는 題目과 <全身麻痺의 假病의 試驗>이라고 註를 단 副題부터가 非合理的이다. 가볍게 생각하면, 이러한 詩作은 現代의 無聊한 詩人들의 한낱 장난이나 戲弄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깊이

18. 中橋一夫, 『現代英美文學』 55頁.

19. 同上, 56頁.

20. André Breton; Paul Eluard, *L'immaculée conception*.

생각하면 現代의 詩人들이 理性을 戲弄한다는 이 事實은 現代의 特質을 잘 말하여 주는 것으로 결코 그것은 偶發的인 作戲는 아닌 것이다. 近代는 人類歷史上 그 어느때보다도 人間의 尊嚴이 高調되던 時代이었으며, 人間이 것처럼 尊大해질 수 있었던 最大의 根據와 理由는 무엇보다도 그들은 絶對的인 理性의 所有者라는 確信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理性의 權威와 尊嚴이 땅에 떨어지고 만 오늘의 廢墟 위에선 그들이 敢行할 수 있는 것이란 理性의 殘骸를 해골바가지처럼 굴굴리고 嘲弄할 수 있는 行動 뿐이다. 理性에 대한 이러한 嘲弄을 우리는 이러한 作品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으며, 실로 人間의 精神史가 보여주는 桑田碧海의 現象이라 아니할수 없다.

1630年代에 있어 西歐現代文學의 이와같은 影響을 多分히 받아 韓國現代 詩의 新局面을 開拓한 바 있는 詩人 李箱도 그의 《烏瞰圖》에서 다음과 같이 不條理한 現實을 表現하고 있다.

烏瞰圖(詩第一號)

十三人の 兒孩가 道路를 疾走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適當하오)

第一의 兒孩가 무섭다고 그리오

第二의 兒孩도 무섭다고 그리오

第三의 兒孩도 무섭다고 그리오

第四의 兒孩도 무섭다고 그리오

第五의 兒孩도 무섭다고 그리오

第六의 兒孩도 무섭다고 그리오

第七의 兒孩도 무섭다고 그리오

第八의 兒孩도 무섭다고 그리오

第九의 兒孩도 무섭다고 그리오

第十의 兒孩도 무섭다고 그리오

第十一의 兒孩도 무섭다고 그리오

第十二의 兒孩도 무섭다고 그리오

第十三의 兒孩도 무섭다고 그리오

十三人の 兒孩는 무서운 兒孩와 무서워하는 兒孩와그렇게 뿐이 모였오  
(다른 事情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낳았오)

그중에 一人의 兒孩가 무서운 兒孩라도 좋소

그중에 二人의 兒孩가 무서운 兒孩라도 좋소

그중에 二人의 兒孩가 무서워 하는 兒孩라도 좋소

그중에 一人의 兒孩가 무서워하는 兒孩라도 좋소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適當하오)

十三人の 兒孩가 道路로 疾走하지 아니하여도 終소<sup>21</sup>

이러한 詩에서 우리가 直感할 수 있는 것은, 意識的인 混亂과 意識的인 矛盾의 強調라는 一種의 精神的 錯亂狀態이다. 그러면 이러한 狀態는 어디로부터 原因하는 것인가? 그것은 統一의 支柱를 喪失한 文化的 矛盾과 現實의 破綻이 가져오게 만든 現象이다. 그리고 그 文化란 理性을 中心한 近代의 文化이고 그 現實이란 그러한 文化가 破綻에 直面한 現代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作品을 比較할 때, 《處女孕胎》를 가리켜 破綻과 混亂을 가져오게 한 主體인 理性 自體를 不信하는 態度를 表明한 作品이라 한다면, 《鳥瞰圖》는 그러한 破綻과 混亂을 당하고 있는 客體인 現實 自體를 表現한 것이라고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統一性を 喪失한 現代의 性格과 그를 顯著히 反映하고 있는 現代文學의 몇개의 代表的인 例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批判的 眼目을 刺戟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적지 아니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要約하여 우리는 이러한 文學들을 대하면서 文學은 이래서 滿足할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疑問을 禁할수 없다.

낡은 時代의 統一理念이 허망하게 물러 나가고 그를 補償해줄 아무런 明日의 徵候도 나타나지 않는 이 文化的 空白地帶에서 머리를 들 수도 있는 저들 否定과 嘲笑와 解體의 消極的 思想들에 우리들 自身이 共感을 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絶望感和 動搖의 心情을 理解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性質의 文學은 한낱 過渡期的인 文學風土에 서만 일어날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하는 批判意識을 적어도 우리의 腦裡에서 말끔히 떨어 버릴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와같이 消極的이기만 한 態度로써는 우리의 生活과 文學이 安定을 얻을 길이란 永遠히 있을수 없겠기 때문이다.

이러한 文學에서 우리가 느끼는 率直한 느낌이란 그것은 어제의 낡은 廢墟를 處理하는 뒤치닥거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어느 期間은 뒤치닥거리가 必要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보다 重要한 것으로 要請되는 것은, 새로운 統一原理의 建設을 위한 整地作業이 아닐 수 없다.

사실 現代文學의 다른 面을 살펴보면 이러한 建設을 위하여 活動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지 아니 發見할수 있다. 이러한 活動을 가리켜 20世紀 文學의 積極的인 面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女子의 잘못이 아니다. 사상의 잘못도 아니다. 섹스의 잘못도 아니다. 잘못은 저

21. 『李箱選集』, 105面.

기 저편의 邪惡한 電氣의 光線과 엔진의 惡魔와 같은 騒音 가운데 있다. 저 機械化된 貪欲과 貪欲한 메카니즘의 世界 속에 光線을 번쩍이고, 뜨거운 金屬을 튀기고 運搬車의 騒音을 내면서 巨大한 邪惡한 것이 가로 누워 있으며, 自身에 合致되지 않는 것을 모조리 破壞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머지 않아 森林을 파괴하여 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신스도 피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傷하기 쉬운 것들은 첫덩이가 廻轉하고 달리는 곳에서는 滅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限없이 부드럽게 그 女子의 일을 생각했다. 가련한 의지할 곳 없는 女子, 그 女子는 저 自身도 미처 모를만큼 優雅한 女子인 것이다. 아아, 지금 이 女子와 함께 있지만, 耕閭의 部類와는 너무도 다른 優雅한 女子이다. 가련하게도 이 女子에게도 野生의 하신스와 같이 傷하기 쉬운데가 있다. 그 女子는 現代의 女性과 같은 粗雜한 고무製品이나 自金과 같은 女子는 아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女子를 죽이고 말 것이다. 확실히 그러한 것들은 돌아나는 상냥한 生命을 짓밟는 것같이 그 女子도 짓밟아 버릴 것이다. 優雅하다. 그렇다. 그 女子는 자라나는 하신스와 같이 어딘가 優雅한 데가 있다. 오늘날의 세무로이드製品의 女子들에게는 잃어버려진 優雅함이다. 얼마동안 나 自身도 이 心臟을 가지고 그 女子를 보호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일 것이다. 냉혹한 鐵의 世界와 機械化된 貪欲한 貨幣의 神이 그 女子도 자기도 함께 짓밟아버릴 때까지의 일이다.<sup>22</sup>

理性的 沒落過程을 精神的인 面과 制度的인 面에서 分析 檢討할 수 있을 것이다. 前者의 경우 合理主義는 理想主義를 낳고, 理想主義는 樂觀主義를 낳고 樂觀主義는 公式主義를 낳게 되어 드디어는 偏狹한 觀念論과 近代의 意味의 새로운 因襲으로 墮落케 되었으며, 後者の 경우 合理主義는 自由競爭을 낳고, 그것은 그리하여 資本主義를 낳고, 資本主義는 機械文明의 性格을 變造하여 메카니즘으로 顛落케 하였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兩者는 實相은 表裡關係에 있는 하나인 것으로 公式主義의 特質이란 機械主義의인 데에 있고, 機械主義의 特質 또한 搖之不動의 公式性에 있음은 明白하다.

이와같은 合理主義의 致命的인 缺陷에 의하여 人間의 自然性과 社會的인 健康美를 잃고, 사뭇 콩크리트 바닥처럼 굳어지기만 한 現代라는 이 不毛의 땅에다 새 生命의 優雅한 싹을 돋아나게 하기 위하여 D.H. Lawrence(1885-1930)는 그의 小說 *Lady Chatterley's Lover*에서 原始的 生命力的 復興을 主張하고 있다.

여기 引用한 이 小說의 一節은 森林적이 멜라스가 차털리夫人인 코니와 처음으로 性交를 맺은 후에 그의 가슴에 떠오른 感懷를 叙述한 것이다. 優雅로써 要約 表現된 健全한 兩性關係가 機械主義의 橫暴에 의하여 하신스와 같이 짓밟혀버릴 苦惱와 刑罰을 覺悟하는 叙述 가운데 機械文明에 대한 作者의 憎惡가 잘 表現되어 있다. Lawrence는 理性이 沒落해버린 現代의 病源을 機械主義의 不毛性에서 發見하고, 이를 治療하고 救濟하는 唯一한 길을 健全한 兩

22. D.H. 로렌스, 『차털리夫人의 戀人』 148-149頁(國際文化社刊).

性關係의 樹立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즉 새로운 生의 本質을 健全한 섹스에서 求하고 이 本質으로써 宇宙統一의 새로운 原理로 삼으려는 作者의 積極的인 意圖를 다음과 같은 句節에서도 歷歷히 볼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에 대한 기묘한 驚異가 깨우쳐졌다. 남자! 그녀 위에 있는 남자의 야릇한 힘! 그녀의 손은 아직도 조금 두려워하는 듯하면서 그를 더듬었다. 그녀가 그를 만져보니 그것은 神의 아들과 人間의 딸이 함께 있는 상황을 가져왔다. 그의 아름다움, 그의 肉細胞의 순수함을 느낄수 있었다. 민감한 肉體의 이러한 조용함이란 얼마나 사랑스럽고 강하고 그러면서 순수하고 멜리케이트한 것인가! 힘과 멜리케이트한 肉體의 철저한 고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녀의 손은 떨면서 그의 등으로 그의 엉덩이의 조고마한 曲線이 있는 곳으로 더듬어 갔다. 아름다움! 아름다움! 새로운 認識의 작은 불길기 갑자기 그녀의 몸을 꿰뚫었다. 그녀가 앞서 嫌惡感만을 느낀 곳에 이 아름다움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일까? 따스한 살아있는 XX이의 감촉의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 生命 속의 生命. 따스하고 힘찬 아름다움. 그리고 그의 사타구니의 XX의 야릇한 重量感! 이게 무슨 神秘일까! 사람의 손안에 부드럽게 묵직하게 놓여질 수 있는 이 무슨 신비롭고 야릇한 重量感일까. 뿌리, 모든 아름다운 것의 뿌리, 모든 完熟된 아름다움의 原始의 뿌리.<sup>23</sup>

現代의 文學에서는 새로운 宇宙統一의 根源이 될 수 있는 生의 本質을 非合理的 分野에서 追求하면서 특히 理性과는 가장 對極的 距離에 있는 〈섹스〉에서 追求하고 있는 傾向을 Lawrence 以外の 다른 作家・詩人들에게서도 적지 아니 發見할 수 있다. 그 가장 좋은 例가 超現實主義의 詩人들의 作品일 것이다.

大地는 파릇한 한개의 오렌지다  
 단 하나의 잘못도 거짓도 없다  
 여기서는 우리는 더 다른 노래를 갈망하지 않는다  
 사랑만이 強烈한 키스를  
 느리어 꾸며 준다  
 그대의 다문 盟約의 입  
 모든 비밀과 모든 微笑  
 이 너그러운 옷깃 아래에서  
 그대의 裸體를 의심할 뿐이다

꿀벌이 푸른 꽃잎을 연다  
 밝는 날이 목 언저리에

23. 同上, 214頁.



窓의 목거리를 단다  
 날개는 잎을 덮는다  
 그리고 그대가 찾이한 太陽의 기쁨의  
 全部 地上의 모든 햇빛  
 그것은 너의 芳醇을 길 위에 가득 쏟는다. 24

Eluard의 長詩 《사랑은 곧詩》의 一節이다. 前聯에서 女人의 全裸體를 後聯에서는 그 裸體와의 性交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作者 Eluard는 여기서 섹스를 위한 無意味한 섹스를 挑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生命의 가장 純粹한 本質로서 섹스를 追求하고 있다. Eluard와 그 밖의 쉬르레아리즘의 詩人들이 宇宙統一의 새로운 原理를 探求하기 위하여 Sigmund Freud (1856-1939)의 精神分析學의 影響 아래 이른바 libido 내지 id의 세계로 進入한 그 經路와 事情은 반드시 Lawrence의 그것과 同一하지는 않지만, 理性의 不毛한 歷史에 대하여 失望과 不滿을 깨달은 나머지 그것과 對極的 關係에 있는 性的 野性的 原始力에서 生의 새로운 意味를 發見하려고 한 그 積極性에 있어선 同一하다.

내가 깨무는 이 빵은 일찌기 燕麥이었다  
 異國의 나무에 나는 포도주는  
 그 열매 가운데 스며 들었다  
 낮엔 사람들이 또 밤엔 바람이  
 이삭을 꺾었다. 포도의 희망을 짓밟았다

일찌기 바람 속에서 포도의 피는  
 포도나무를 꾸며준 살을 밀고 스며 들었다.  
 일찌기 이 빵 속에서  
 燕麥은 즐겁게 바람에 불리웠다  
 사람들은 太陽을 부수고 바람을 쫓았다

그대가 깨무는 이삭, 그대의 핏줄 속에  
 거칠게 스며드는 이 피  
 그것들은 官能의 뿌리와 樹液으로부터 태어난  
 燕麥과 葡萄酒였다  
 그대가 마시는 나의 포도주 그대가 깨무는 나의 빵은<sup>25</sup>

24. Eluard, *Lamour la poésie*.

25. 安藤一郎・高村勝治, 『英美의 現代詩』 228頁.

Dylan Thomas(1914-1953)의 詩 ‘This bread I break에서도 兩性關係의 섹스가 主題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섹스를 內容으로 삼으면서도 그 素材인 葡萄酒와 빵을 그리스도를 中心으로 두른 十二弟子의 聖晚餐과 關聯시킴으로써 아이로닉하게도 宗教와 섹스를 交錯시키고 있는 手法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敎와 섹스는 時代에 따라선 각각 生의 原理로서 소중한 別個의 役割을 擔當하였고 또 擔當하고 있다는 아이로닉한 歷史的 事實 때문인지도 모른다.

메카니즘의 無氣力한 現代에다 原始의 生命力을 復興시킴으로써 文化의 危機를 救濟하려는 이러한 努力은 韓國의 現代文學에도 일찌기 徐廷柱의 詩 《花蛇》를 통하여 나타나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但 詩人 徐廷柱는 東洋人 답게 原始生命의 本質을 섹스가 아닌 自然의 對象가운데서 求하려 하고 있음이 西歐的인 趣味와는 다르다 할수 있다.

麝香 薄荷의 뒤안 길이다

아름다운 베암

을마나 크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둥아리나

꽃다님 같다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내던 達辯의 헛바닥이

소리 잃은채 널롱거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하늘이다...물어 뜯어라 원통히 물어 뜯어

달아 나가라 저놈의 대가리!

돌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麝香芳草길

저놈의 뒷을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이브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石油 먹은듯 石油 먹은듯 가쁜 숨결이야

바늘에 꼬여 두를가부다 꽃다님보담도 아름다운 빛

클레오파트라의 피먹은냥 붉게 타오르는

고운 입술이다.....스며라! 베암

우리 순네는 수무살 난 섹시 고양이같이 고운 입술.....

스며라!

베암, 26

26. 『徐廷柱詩選』(正音社刊), 73面.

이 詩에서 詩人 徐廷柱는 하나의 野生의 動物에 지나지 않는 꽃배암을 詩의 對象으로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動物中에서도 가장 野生的이고 精力的인 배암은 이 詩人이 憧憬하고 渴望하는 原始生命의 象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팔매를 쏘면서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아내가 이브라서 그 誘惑의 원수를 이제 갚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祖上의 原罪에 대한 양갓음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꽃다넛같이 아름다운 原始的 野性에 魅惑되어 石油를 먹은듯 가쁜 숨결을 허덕이며 그놈을 追求하여 마지 않는 것이다. 原始的 純粹生命에 대한 強烈的 追求의 表現인 것이다.

이밖에 前記한 바 있는 『율리시스』와 實存主義의 文學도 亂混한 現代的 樣相을 反映하는데 그치지 않고 混亂을 統一할 수 있는 새로운 根據와 모달을 보여주는 有力한 文學이라고 할 수 있다. 『율리시스』의 插話들은 表現形式面에서는 意識의 흐름을 描寫하고 있지만, 그 插話들이 모여 이루는 作品의 全體的 構造는 不變의 人間性을 보여주는 父子間의 永遠한 愛情을 主題로 삼은, 希臘의 *Odysseia*를 模範으로 삼아 가장 緻密精巧하게 組織되어, 完璧에 가까운 藝術的 統一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결국 作者 Joyce는 現實의 混亂한 樣相을 靜의 세계인 藝術的 統一에 의하여 美的 次元에서 收拾再建하려 하였던 것이다.

한편 實存主義는 主觀的인 誠實性을 客觀的인 合理性에 代置시켜 20世紀의 混亂의 樣相을 救濟해보려고 絶望的인 努力을 계속하고 있는 點에서 現代的 苦惱의 色彩가 짙은 別다른 모달을 提示하여 주고 있다.

나는 氣分이 가벼워졌다고도 滿足하다고도 할 수 없다. 反對로 나는 壓倒되어 있다. 단지 나의 目的은 이루어진 것이다. 알고싶던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한달 동안 내게 일어난 일을 完全히 理解하게 된 것이다. 嘔吐는 나에게서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 쉽게 떠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는 이 이상 嘔吐의 습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상한 症狀이 아니고 一時的인 구역질도 아니고 그것은 곧 나 自身인 것이다.

實은 조금 前에 나는 公園에 있었다. 마로니에의 뿌리는 마치 내가 걸터앉은 벤치 바로 밑 바닥 땅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것이 나무의 뿌리라고 그러나 나에게서는 생각되지 않았다. 말(言語)은 사라져 버리고, 말과 함께 事物의 意味도 그 使用方法도, 또는 事物에다 사람들이 매긴 희미한 符號도 깡그리 사라지고 말았다. 얼마간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나는 혼자서 그 거무죽죽하고 울퉁불퉁한 뿌리의 덩치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 덩치는 나에게 恐怖를 느끼게 하였다. 그로부터 나는 그 啓示를 얻은 것이다.

그것이 一瞬間 나의 숨이 막히는 經驗을 하게 하였다. 이 사나흘 전까지는 <存在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絶對로 豫感치 못하였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點이 없었다. 나들이 옷을 입고 海邊을 散步하고 있던 사람들과 같았다. 나도 그들과 같이 『바다는 푸르다』고 『저 공중의 흰 點은 갈매기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에, 갈매기가 存在하고 있는 갈매기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었다. 보통 存在는 숨겨져 있다. 存在는 거기에 우리들의 周圍에 우리들 속에 있다. 그것은 <우리들>이다. 存在에 대하여 알지 않고는 무엇 하나도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결국 存在에 손을 대는 것은 不可能한 일인 것이다. 내가 存在에 대하여 思考하였다고 믿을 때에 사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머리는 空虛로 찻던지, 혹은 그저 바야흐로 하나의 言語 즉 <있다>는 한 마디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것이었다. 갑자기 그것은 거기에 白晝와 같이 분명하게 거기에 있었다. 存在(實存)는 갑자기 베일을 벗은 것이다. 그것은 抽象的 範疇에 속하는 無害한 모습을 잃어 버렸다. 그것은 事物의 반죽 그것이 없으며, 이 나무의 뿌리는 存在 속에서 주물러지고 있었다. 고 말할까. 아니 차라리 뿌리도 公園의 울타리도 벤치도 貧弱한 잔디밭 풀도 모두가 사라지고 말았다. 事物의 多樣性, 그 個性은 단순한 假象 단순한 범벅에 지나지 않았다. 그 범벅이 풀어졌다. 그리고 怪物스런 부드러운 無秩序의 덩치가—무시무시한 음탕스러운 裸相의 덩어리만이 남았다. ……存在(實存)한다는 것은 그저 <단지 거기에 있다>는 것 뿐이다. 27

Jean-Paul Sartre(1905- )는 이 引用文에서보는 바와 같이, 그의 小說『嘔吐』(La nausée)에서 主人公 로캉뎡으로 하여금 即自存在(實存의 主體)의 眞正한 모습을 自覺하게 하고 있다. 이 小說에서 作者가 提示하는 實存이란, 스스로 <充實하여진> 것이고, <自己에 대하여도 他者에 대하여도 아무런 關係가 없는것>이고, 그것은 <전혀 偶然的인 것이고>, <군더덕이>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存在란 創造된 바 없는 盲目的이고 無意味한 것임을 主人公이 깨닫도록 만들고 있다. 이 無意味性을 깨닫고 主人公 로캉뎡은 비로소 人間의 條件에 대한 嘔吐를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嘔吐는 生理的인 것이 아니고 哲學的인 幻滅이다.

Sartre는 小說『嘔吐』의 이와같은 思想을 그의 哲學著書『存在와 無』에서는 다음과 같이 抽象的인 論理로 展開하고 있다.

即自는 創造에 의하여 說明할 수 없다. 創造는 即自로부터 그 存在를 빼앗고 만다. 또는 可能性에 의하여서도 說明할 수 없다. 可能性은 對自를 構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必然性에 의하여서도 說明할 수 없다. 必然性은 觀念的 命題의 秩序에 있어서 價値를 가지나 實存하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關係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即自存在는 완전히 偶然的이고 즉 神에 의하여 創造되어진 것이 아니고, 存在理由를 갖지 아니하고 아무런 關係도 없고 永遠性에 대하여 군더덕이인 것이다. 28

그러나 實存은 本質에 先行한다는 實存主義의 이러한 思想에서 必然的으로 提起될 수 있는

27. 『자르프르르全集』(人文書院刊), 卷6, 218-219頁.

28. Sartre, *L'être et le néant*, 序說 p. 11~34 參照(트로로프 오킨테스著 安井源治譯 『サルトルヒマルセル』에서 引用).

問題는 自由와 責任에 대한 思想이다. Sartre는 그가 論述한 『實存主義는 휴머니즘이다』에서 이 點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人間은 自由이다. 人間은 自由 그 自體다. 우리는 우리의 背後에도 또는 前面에도 明白한 價値의 領域에 正當化를 위한 理由도 逃亡할 口實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우리는 逃避할 口實도 없어 孤獨하다. 이 點을 나는 人間은 自由의 刑罰에 處해져 있다고 表現하고 싶다. 刑에 處해져 있다는 것은 人間은 自己自身을 創造해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더욱이 一面에 있어서 自由하다는 것은 一旦 世界 속에 投企되어 있는 以上은 人間은 自身이 行하는 일 一切에 대하여 責任이 있기 때문이다.<sup>29</sup>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責任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實存이 本質에 앞서는 것이라면, 人間은 스스로 存在하는 것에 대하여 責任이 있다. 따라서 實存主義의 最初의 手續은 各自로 하여금 스스로 存在하는 것을 把握케 하고 스스로의 實存에 관해서 全責任을 그가 負荷케 하는 일이다. 人間은 自己自身에 대하여 責任을 갖는다는 경우, 그것은 嚴密한 意味에서 그 個人에 관해서만 責任을 갖는 것이 아니고 全人類에 대하여서까지 責任을 갖는다는 意味이다.<sup>30</sup>

여기서 또다시 問題가 되는 것은 어떠한 方法으로 人間은 自由에 대한 責任을 負荷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實存主義는 이 方法으로서 <誠實>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이 誠實은 社會와의 交渉이 없는 單獨者의 誠實인 것에 着眼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Sartre가 實存主義의 旗幟를 든 것은 兩次大戰前後의 狀況 아래서 낡은 連續的 進歩의 理念과 普遍的 人間性의 理念에 대하여 絶望을 느낀 때이다. 그러므로 Sartre의 實存은 單獨者가 지니인 實存이며 不安한 絶望的인 實存이며, 同時에 이러한 實存을 解決하는 方法으로서의 誠實에 관한 問題도 어디까지나 普遍的 合理性과는 關係가 없는, 單獨者의 고독한 誠實로서 強調되고 있는데 그 特徵이 있다. 實存主義의 誠實에 대한 이러한 態度는 Albert Camus(1913-1961)의 小説 『페스트』와 『異邦人』에 濃厚하리만큼 提示되어 있다.

『페스트』의 主人公 醫師 류는 人間은 無意味한 盲目的인 存在임을 믿고 있다. 따라서 오랑 市에 旺盛한 氣勢로 侵入하여 오는 페스트의 絶望的인 狀況으로부터 人間은 永遠히 헤어 나올 수 없을 것을 안다. 一瞬間 幸福과 기쁨은 오지만 페스트와 같은 不幸과 죽음은 언제나 人間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류의 絶望的인 思想을 『페스트』의 맨마지막 몇 行에서

29. Sartre,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人間社譯) 38~39.

30. 同書, 30頁.

읽을 수 있다.

시내에서 올라오는 경쾌한 환호성을 들으면서 사실 류는 그 기쁨이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연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기쁨에 잠겨 있는 군중이 모르고 있는 사실 즉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수십년간 가구나 속옷들 갈피에서 잠자고 있을수가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헌 종이 같은 것들 틈에서 꾸준히 기다리고 있으며 따라서 아마도 언젠가는 인간에게 불행과 교훈을 갖다 주기 위해서 페스트가 또다시 저 쥐들을 깨워 가지고 어떤 행복한 都市로 그것들을 몰아 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sup>31</sup>

그러나 이러한 絶望 속에서 아무런 期待를 갖지 않는 醫師 류는 닥치는 患者들을 誠實하게 治療한다. 合理的 見地에서 보면 이러한 行動과 思考는 二律背友的이다. 그것은 希望과 目的이 있는 곳에 人間の 努力과 誠實은 따르기 마련인 때문이다. 그러나 류는 그렇지 않다. 絶對한 自由와 責任은 류로 하여금 無報償・無目的의 誠實한 行動을 낳게 한다.

한편 『異邦人』의 主人公 피르소의 行動은 實存主義的 誠實의 獨自性을 더욱 길은 것으로만 들고 있다. 피르소는 여름의 海水浴場에서 아라비아人 두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나 正確히 말하면 피르소 自身은 그 싸움에 直接 加擔하지는 않았다. 그의 同僚들인 마쑹과 레이몽이 아라비아人들과 싸웠던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 피르소 혼자서 바닷가로 나갔을 때 싸움의 張本人인 아라비아人 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 아라비아人은 短刀를 들어 피르소를 먼저 위협하는 行動을 취하였다. 그때 더위에 시달린 피르소는 強한 햇빛의 反射로 發作的인 神經質을 일으켜 아라비아人을 쏘아 죽인다.

그러나 殺人犯으로 逮捕된 피르소는 法廷에서 一切의 自己辯明을 하지 않고 周圍사람들의 勸告도 아랑곳 없이 上訴조차 하지 않은채, 殺人의 理由를 “太陽때문이 었다”고만 奇異하게 自白하였을뿐 고스란히 死刑을 甘受하고 만다.

作者 Camus가 主人公의 이러한 行動을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人間の 誠實性이다. 殺人의 動機와 理由야 어떻든, 피르소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辯明할 必要는 없다. 人間에게는 回避치 못할 自由와 責任이 있기 때문에 그 責任을 어김없이 저야 한다는 것이 피르소가 취한 行動의 根據인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피르소의 이와같은 行動의 誠實性은 十字架의 죽음의 쓴 齏를 물리치지 않은 그리스도의 行動에 匹敵할만 하다. 合理的으로는 도저히 救濟의 길이 없는 現代의 混亂과 矛盾의 社會에다 『異邦人』의 作者 Camus가 要求하는 것은 主觀的인 人格의 誠實性이다. 實存主義는 存在의 虛無를 認定하면서도 그 虛無를 人間の 誠

31. Camus, *La peste* (正音社刊 世界文學全集 卷30, 293頁).

實로써 메꾸려하고 있다.

以上에서 大略 統一性의 回復을 위하여 現代에서 새로이 움직이는 代表的인 文學思潮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들 統一의 새로운 原理를 模索하고 追求하는 20世紀의 새로운 文學들에서 우리가 共通으로 느끼는 點은, 그것이 性의 文學이건 靜의 文學이건 또는 誠實의 文學이건 한결같이 지나치게 極端主義的으로 흐르지 않나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實際的이라 할 수 있는 實存主義의 道德性마저도 결국은 藝術的인 道德의 魅力에 지나지 않는다는 事實을 우리는 Camus의 前述한 『異邦人』의 例에서도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피르쑌가 死刑言渡를 宣告 받는 法廷에서조차 自身の 正當防衛에서 나온 殺人行爲에 대하여 이렇다할 辯明 한 마디 없이 殺人에 대한 責任을 스스로 甘受하였다는 奇異스런 行動은 人間으로서 가장 正直하고 誠實한 行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르쑌의 이러한 行動은 이미 위에서 列擧한 바와같은 人間은 처음부터 絶對的인 他者와는 아무런 關係도 없이 던져진 單獨한 存在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自身の 自由로운 行動의 結果를 責任지울수는 없다는 實存主義의 哲學的 根據를 合理化시켜주는 點에 있어서는 스스로 滿足을 줄 수 있고, 또 藝術的 道德의 獨特한 魅力까지도 풍기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一般的 人間性에 立脚한 實踐的 道德의 可能한 行爲라고는 말할수 없다. 왜냐하면 現實에 살고 있는 大多數의 人間은 피르쑌와 같은 막다른 골목에 處하게 되면 그 殺人行爲가 비록 正當防衛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死刑을 免하려는 人間 普遍의 心情에서 어떻게든 自身에 有利하게 殺人의 動機를 辯明할 것이며, 이러한 行爲야말로 오히려 自然스러운 人間性的 發露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點에 있어, 人間의 具體的인 實存을 무엇보다 重視하고 抽象的인 觀念의 產物과 理想을 排除하는 實存主義의 作者가, 그의 作品世界에 있어서는 오히려 現實의 普遍的인 實存的 狀況을 無視하면서 까지 思想的 強調을 위한 強調 때문에 特殊한 理想主義的 人間觀에 빠져 自身이 排折하기를 즐겨하는 抽象에 흐르고 마는 過誤를 犯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 20世紀 文學의 이와같은 共通된 極端的 傾向은 어디서부터 由來하는 것인가 그것은 現代文學의 反合理的 傾向이 必然的으로 特色지어 주는 하나의 性格이라고 할 수 있다. 合理的인 思想이 穩健과 中庸의 產母임에 反하여, 그와 對立되는 思想으로부터 極端的인 結果가 맺어지리라는 것은 理解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에 이르러 우리가 눈을 돌이켜 생각하게 되는 것은 20世紀의 主潮的 傾向과는 매우 相異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T.S. Eliot과, 傳統에 依據한 新古典主義的 立場을 堅持하고

있는 그의 思想이다. Eliot은 그의 長詩 *The Waste Land*에서 物質偏重으로 墮落한 現代文明을 批判하고서 다음과 같이 作者의 所信를 노래하고 있다.

I sat upon the shore  
Fishing, with the arid plaia behind me  
Shall I at least set my lands in order?<sup>32</sup>

(나는 강언덕에 앉아  
낚시를 드리운다. 나의 등뒤에는 메마른 들이 널려있다  
적어도 나만이라도 나의 땅을 가꾸어 볼까?)

堅實한 傳統의 土臺 위에서, 新奇를 追求하지 않고, 自己 한 사람 몫의 信仰을 착실하게 지킴으로써, 이 混亂한 現代를 헤쳐 나가려는 그의 信念을 노래하고 있다.

Eliot은 「傳統과 個人的 才能」(*Tradition and Individual Talent*)이란 評論에서, 傳統의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披瀝하고 있다.

傳統은 무엇보다 첫째로 歷史意識을 意味한다. 그 意識은 25歲를 지나도 아직도 詩人이 될려고 하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거의 必要 不可缺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歷史意識이란 것은 過去의 지나간 일을 知覺하는 것만이 아니고 過去가 現在에 存在하고 있는 것을 知覺하는 것을 意味한다. 이 歷史的 意識이 있기 때문에 人間은 自己 背속 깊어 들어있는 自身の 時代만이 아니고 호메로스 以來의 全유럽 文學과 그안에 있는 自國의 全文學과는 同時的 存在를 保持하고 同時的 秩序를 만든다는 感情을 가지고 創造함을 強要 당하게 된다. 이 歷史的 意識—이 것은 現世的인 것에 대한 意識과 함께 永久的인 것에 대한 意識이며 現世的인 것과 永久的인 것을 합친 意識인 것이다. 이것이 作家로 하여금 傳統의 이계 만드는 要件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同時에 作家로 하여금 時代에 있어서의 그의 地位를 그의 現代性을 가장 切實히 意識케 하는 要件이다.<sup>33</sup>

여기에서 詩人 Eliot은 한 時代에 局限된 意識이 아니라, 歷史의 全時代를 網羅한 意識과 그러한 意識으로부터 얻어진 眼目을 가지고서, 作家는 人生과 世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論旨의 本質을 그렇게 地上에 局限시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이 筆者는 地上에서의 全時間은 물론이요, 그 以上の 永遠한 時間에 까지 意識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는 매우 重要的 事實을 看過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現世的인 歷史와 永久的인 즉 來世的인 歷史에 同時的인 눈을 돌려야 한

32. T.S. Eliot,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p.50.

33. 北村常夫譯, 『엘리엇文學論』 4, 5頁.



라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왜 그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면 여기서 筆者가 強調하는 傳統의 本質이란 그리스도教을 中心한 유럽의 綿綿한 歷史이기 때문이며, 超現世的인 永遠性を 沒却한 곳에서 그리스도教의 精神的 傳統은 樹立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Eliot이 이와같이 強調하는, 傳統의 現世性を 넘어선 永遠성은 그의 晩年の 大作 《네四重奏》(Four Quartets)를 읽음으로써 充滿하게 感得할 수 있다.

You are not here to verify,  
Instruct yourself, or inform curiosity  
Or carry report. You are here to kneel  
Where prayer has been valid.<sup>34</sup>

(그대가 이세상에 있는 것을 證明하기 위함도  
그대 自身을 教訓하기 위함도, 珍奇함을 告하기 위함도  
또 소문을 퍼뜨리기 위함도 아니다. 그대는 이세상에 있다  
기도가 보람있던 곳에 무릎을 꿇기 위하여.)

그는 이와같이 來世의 永還을 向한 現世의 確固한 生의 目的을 노래하고 있다. 또는

At best, only a limited value  
In the knowledge derived from experience.  
The knowledge imposes a pattern, and falsifies,  
For the pattern is new in every moment  
And every moment is a new and shocking  
Valuation of all we have been. We are only undeceived  
Of that which, deceiving, could no longer harm.<sup>35</sup>

(經驗으로부터 얻은 知識에는  
아무리하여도 制限된 價値만이 있을뿐.  
知識은 原型을 가리우고 거짓되게 한다.  
原型은 瞬間마다 새롭고  
그 瞬間은 또 刻刻으로 새롭게 자극한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價値를 우리는 깨우쳐진다.  
속이면서 우리가 더함받지 않는 곳에서.)

이와같이 人生의 課題는 個人的인 經驗과 知識의 擴大나 伸長에 있는 것이 아니고, 信仰

34. T. S. Eliot,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p. 139.

35. 同書, p. 125.

을 바탕으로 하는 傳統이라는 原型다에 自己를 知慧롭고 謙虛하게 合致시키는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와같이 知識의 힘과 能力을 制限하고 否定하는 點 즉 非合理的인 路線을 취하는 點에 있어서는 Eliot의 思想도 20世紀的 傾向과 步調를 같이 하고 있으나 人間中心의 새로움과 個性을 抑制하고 信仰的傳統에 歸着하는 點에서는 Eliot은 現代의 極端主義와는 또다른 方向의 길을 擇하고 있음을 判別할 수가 있다.

以上 20世紀文學의 主潮를 살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Mathew Arnold(1822-1888)의 “詩는 生命의 批評이다”<sup>36</sup>라고 한 숨궫깊은 말이다. 우리가 現代文學의 여러가지 進路를 더듬으면서 Arnold의 이 말의 뜻을 더욱 切實히 느끼게 되는 理由는 오늘날의 文學이야말로 그 가장 主要한 課題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哲學的 물음에로 集中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安樂한 時代에 있어서는 文學은 生活의 단순한 反映이나 描寫나 禮讚으로써 滿足을 느낄 수 있고 그 使命을 完遂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生의 基盤이 송두리채 뒤집힌 時代에 處하여서는 文學이 그런 現實의 反映에만 그치고 만다는 것은 安易한 態度이며 나아가서는 無意味한 일이기까지 하다. 現代文學에 追求의 積極性이 要求되는 所以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20世紀에 있어 文學을 한다는 것은 가장 至難한 일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 破綻의 時代를 收拾하여 어느 길로 이끌고 가야 할 것인가? 以上에서 考察하여 온 바와 같이 果然 그길이란, 非合理的인 極端의 길들인가, 理性을 그런대로 새로이 回復하는 길일 것인가 信仰을 堅固히 지키는 길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밖에 별다른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結論은 아득하면서도 明白하다. 그 어느 길을 취하여 나가든지 그것은 그 作家의 슬기로운 智慧와 最善에 속하려니와, 20世紀의 當面한 文學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가장 深刻하고 切迫한 疑問符로부터 出發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것만은 明白하고도 宿明의인 事實이라 아니할 수 없다.

36. W.H. Hudson,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Literature*, p.107.